

2번 죽고 2번 산 강한울... 지옥에서 돌아와 흠 났었다

KT전 3회 2연속 합의 판정

1이닝 3아웃 진기록

KIA 7-0 완승...양현종 시즌 8승



KIA 강한울이 '1이닝 3아웃' 해프닝 속에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21일 kt와의 홈경기를 앞둔 강한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지난 이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던 강한울은 이날 9번 타자겸 유격수로 다시 스타링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공격에 마음이 편치 않은 강한울이었다.

"해도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다"던 강한울의 한탄처럼 최근 10경기 타율은 0.100(30타수 1안타)에 불과하다. 출루를 하지 못하니 최근 10경기에서 도루도 하나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선발 라인업에 다시 강한울의 이름을 올린 김기태 감독도 "강한울이 오늘은 해야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되었던 부진이었다.

강한울이 걱정 많은 감독을 웃게 했다. 3회 첫타석에서 강한울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KIA 선발 양현종이 명성대로 3회까지 1피안타 4탈삼진의 호투를 펼치며 분위기를 끌고왔지만 여전히 공격이 없었다. 타자들이 kt의 고졸 신인 주권을 상대로 이렇다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팽팽하던 초반 흐름. 김주찬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갔을 뿐 잠잠했던 1·2회였다.

3회 1사에서 타석에 선 강한울이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 1이닝에 세 번이나 아웃을 당하는 진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강한울은 2루 베이스쪽으로 공을 때린 뒤 1루로 향했다. 빠르게 베이스를 밟았지만 심판의 판정은 아웃. 강한울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아웃이 세이프로 번복이 되면서 죽었던 강한울이 부활했다.

강한울은 이어진 신종길의 타석 때 도루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심판은 아웃을 외쳤지만 강한울은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최대 두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 찬스를 잇달아 쓴 강한울,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다시 한번 판정이 번복되면서 두 번째 아웃을 선안받았던 강한울은 그대로 그라운드를 지킬 수 있었다.

강한울의 빠른 발과 두 차례의 판정 번복 속에 상대의 어린투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종길의 2루타에 이어 최용규의 안타가 나오면서 2-0. kt는 김사율로 일찍 마운드를 교체했지만 강한울을 기점으로 붓물타진 KIA 타격은 한 이닝에 6점을 만들며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3회 두 차례 아웃 판정을 받았던 강한울은 타자 일순해 다시 들어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진짜 아웃'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나온 1인 2연속 비디오 판독과 1이닝 3아웃의 주인공이 된 강한울, 5할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팀과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에이스 양현종을 웃게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강한울이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3회 1사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아웃 판정이 내려졌지만 2연속 비디오 판독 속에 세이프가 번복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덕아웃 특·특

이흥구, 첫 병살타 후 노게임... "비가 살렸어요"

▲"천하에 재수 없는 놈아." = 21일 훈련 시간에 kt의 이대형은 여기저기에서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전날 경기에서 이대형은 세 번째 타석 만에 멀티히트에 멀티도루까지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하지만 kt가 2-1로 앞선 5회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가 중단이 됐다. 이후 비가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노게임이 선언됐고, 이대형의 기록도 비와 함께 사라졌다. 이대형에게는 운이 없었던 하루. 덕아웃에서 손까지 모으고 비가 그치기를 빌었던 이대형은 "뭐 어찌겠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웃었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비가 살렸어요." = 이대형에게는 노게임을 부른 아쉬운 비였지만 이흥구에게는 잊고 싶은 기록을 지워준 고마운 비였다. 이흥구는 20일 경기에서 삼진과 병살타를 기록했다. 이흥구의 올 시즌 첫 병살타가 기록됐지만 5회말 노게임이 선언되면서 1호 병살타는 없던 기록이 됐다. "비가 살렸어요"라고 웃던 이흥구는 "병살타를 치고 들어왔더니 김원섭 선배님께서 혼자만 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플라이라도 쳐야 했는데..."라며 멋쩍게 웃었다.

▲"죽어도 된다지만 죽으면 안되죠." = 올 시즌 KIA의 팀 내 도루 1위는 최용규다. 지난 16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상대가 방심한 사이 3루로 뛰어들면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도루를 만들었다. 벤치의 사인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만들었던 도루. 과감하게 뛰어가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는 않다. 최용규는 "3루 도루는 상대가 덜 신경쓰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그래도 뛰는 것은 어렵다.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죽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죽으면 안된다. 어렵다"고 웃었다.

▲"벼락치고 끝이라서" = 감독도 알 수 없는 KIA의 타격 페이스다. 21일 경기는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양현종과 kt의 고졸 신인 주권의 맞대결이었다. 경기 전 주변의 반응은 "KIA의 우세이지 않겠느냐"였지만 김기태 감독도 믿을 수 없는 타격이다. 폭발적인 공격으로 상승세를 예고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다음 경기에서 침묵을 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KIA다. 김 감독은 "우리 공격은 벼락치고 끝이라서..."라는 말로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타격을 표현했다. /김여울기자 wool@

5분만 버텼어도...아쉽다 무승부

K리그 클래식 17R 광주 FC, 성남과 1-1...5경기 연속 무패

광주 FC가 송승민의 데뷔골로 5경기 연속 무패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 FC가 지난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했다. 전반 27분 2년차 송승민이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막판 성남 황의조의 골이 나오면서 아쉽게 결승골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올림픽대표팀에서 복귀한 수비형 미드필더 이천동이 중원에 섰고, 골키퍼 권정혁을 필두로 이은범, 김영민, 정준연, 이종민이 포백 수비진을 구성했다. 임선영, 이찬동, 여름이 중원을 맡았으며, 최전방엔 파비오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주현우와 송승민이 자리를 했다.

전반전 초반부터 광주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했다. 철저한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성남의 측면을 공략한 광주는 주현우-파비오-송승민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했다. 전반 25분 여름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2분 뒤에는 성남 골망을 흔든 선제골이 나왔다.

이오편이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 이후 올린 크로스가 성남 수비수를 맞은 뒤 송승민 쪽으로 향했다. 송승민은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송승민의 데뷔골이었다. FA컵에서 1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지만 리그에서는 한 골도 날리지 못했던 송승민의 침묵을 깨는 골이었다. 그러나 결승골의 주인공까지는 되지 못했다.

광주가 리드를 잡은 이후 성남의 공세가 매섭게 이뤄졌다. 권정혁의 슈퍼세이프와 두 차례 골대를 맞은 슈팅 덕분에 전반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남기일 감독이 파비오를 빼고 오도현을 투



광주 FC의 송승민(가운데)이 지난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FC와의 경기에서 전반 27분 골을 넣은 뒤 파비오(왼쪽)와 여름(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 FC 제공>

입하면서 전술에 변화를 줬다. 장신 오도현으로 성남 공격을 막고 임선영을 전방으로 올려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후반에도 성남의 거친 공세가 계속됐다. 권정혁이 히카르도와 김동희의 슈팅을 막아내며 어렵게 리드를 지켰지만 마지막 5분을

남기지 못했다. 광주는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황의조를 막지 못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광주는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한 지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6월 기세를 유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대회 메달 2648개 제작 완료



광주 U대회의 영광의 순간을 장식할 시상 메달이 모두 제작됐다.

21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광주U대회 메달은 빛고을 광주의 무한발전을 기원하는 '비상(飛上)을 기본 콘셉트로, 대회 엠블렘인 '빛의 날개'를 응용해 디자인됐다.

메달의 앞면은 광주U대회를 상징하는 빛의 날개가 감싸는 형상으로 제작됐다. 뒷면은 대회 엠블렘과 '유니버시아드'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별, 대회 슬로건인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가 조화롭게 배열됐다.

빛의 날개는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며, 빛의 겹침은 유니버시아드를 통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화합과 우의를 의미한다. 빛의 발산은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날개의 펼쳐짐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 대학생들의 열정과 이상을 표현했다. 이번 대회에 사용될 시상메달은 모두 2648개(금메달 840개·은메달 840개·동메달 968개)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